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4호

체육시민연대 20주년 기념 행사 안내
2022.07.02(토) 오후 4시 ~ 5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교육부 '학교체육교육 포럼'... 학생선수 인권보호 논의

나연준 뉴스1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SON 친구들 집단 대응 예고... '인권 탄압' 명문 카타르 월드컵

김소라 서울신문 기자

김경무의 오디세이

돈이면 다인가? ... '스포츠 워싱'을 새삼 경계한다

김경무 스포츠서울 기자

국제수영연맹

국제수영연맹, 20일부터 12살 이후 성전환 여성 대회 참가 금지

유세진 뉴시스 기자

제주도테니스협회

도체육회, 제주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멈춰야

김동건 뉴제주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체육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스포츠로 행복한 세상 -

- 일시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4시 ~ 5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 무료 주차

✓ 행사 후 식사(위치 : 교대 향방양육관)

문의 : 사무국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교육부 '학교체육교육 포럼'... 학생선수 인권보호 논의

뉴스1
나연준 기자

2022.06.16

2022년 1차 학교체육교육 포럼

**학교체육교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

일시 : 2022. 6. 16.(목) 14:30 - 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

행사일정 (사회: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일정	내용
14:30-15:00(30')	등록
15:00-15:10(10')	개회식 개회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함영기
15:10-15:30(20')	<발표 1> 신체활동 회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프로그램 고찰 및 적용방안 발제: 이규일(경북대 교수)
15:30-15:50(20')	<토론> * 좌장: 박정준(인천대 교수) * 성기백(서울선사초 교사), 김승환(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학부모)
15:50-16:00(10')	휴식
16:00-16:20(20')	<발표 2> 미주권 학생선수 운영제도 및 스포츠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발제: 장승호(San Jose State University 교수)
16:20-16:40(20')	<토론> * 좌장: 박정준(인천대 교수) * 이태현(용인대 교수), 이병호(서울체고 교사), 박나리(학생선수/전북체육회)
16:40-17:00(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10(10')	폐회

참석자 명단 제출 방법

신청서(온라인 설문):
<https://bit.ly/3sH3g7D>
QR코드확인

제출기한 : 2022. 6. 3.(금) 18:00까지

관련문의 : 학교체육진흥회 임현정 주임 (070-4286-6502)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가 학교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는 16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2022년 1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체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일 경북대 교수는 '신체활동의 회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프로그램 고찰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학교체육 신체활동을 분석하고, 국내외 신체활동 증진 모형과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장승호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 교수가 '미주권 학생운동선수 운영제도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장 교수는 미국의 학교급별 학생선수 운영 시스템의 특징과 학생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 및 대응 체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체육 모습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연간 두 차례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앞으로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ON 친구들 집단 대응 예고... ‘인권 탄압’ 멎는 카타르 월드컵

손흥민(토트넘)의 친구들인 해리 케인과 위고 요리스(이상 토트넘), 크리스티안 에릭센(브렌트퍼드)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카타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성소수자 박해 등 카타르의 인권 탄압 논란이 오는 11월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멎게 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인은 15일 2022~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 조별예선 4차전 헝가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리스와 에릭센 등 선수들과 (카타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케인과 요리스는 각각 잉글랜드와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며 에릭센은 덴마크 대표팀의 핵심 선수다.

카타르는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등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월 이주노동자들이 여름철 50℃까지 치솟는 사막에서 보호장비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에 내몰렸으며 6500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또 카타르가 동성애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협회(FIFA) 회장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것”이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셰이크 타미ม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우리 문화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독일 축구대표팀 단장인 올리버 비어호프가 “성소수자에 대한 카타르의 처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카타르에 월드컵 개최권을 부여한 FIFA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 4월에는 리스 라베네스 노르웨이 축구협회장이 “인권·평등·민주주의 등 축구의 핵심 가치가 배제되고 있다”고 FIFA를 비판했다.

김경무의
오디세이

김경무의 오디세이

돈이면 다인가? ... '스포츠 워싱'을 새삼 경계한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페어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이 특히 강조되는 스포츠계도 막대한 돈의 힘이 위세를 부리는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PIF) 후원의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논란 끝에 출범하면서 오랜 전통과 권위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세탁, 즉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스포츠 워싱이란 "개인이나 단체·기업·정부가 그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나 평판 개선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스포츠구단을 매입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내 스포츠에서도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이미 수년 전부터 대기업이 스포츠 후원으로부터 점차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고리대금으로 악명높은 대부회사들이 앞다퉀 국내골프대회 등 스폰서로 나섰다. 아울러 프로배구팀 네이밍스폰서가 되거나 새로운 팀 창단에 나섰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물론 이런 기업 오너의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정까지 깡그리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최근 코인 사업으로 큰돈을 번 업체들이 경기단체 후원사로 나서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중앙이나 지역 회장 자리도 돈많은 사업가들이 주류를 이룬 지 오래다. 이들이 생활체육 등을 통해 해당 종목 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많지만,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 입신양명, 또는 정치무대 진출을 위해 스포츠나 경기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제적인 레벨에서 스포츠 워싱은, 한 국가가 자국내 나쁜 인권상황과 정부내 부패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돼 왔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PIF가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이용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을 창설한 것과 관련해서도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세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가 언론인 살해 등 자국내 인권탄압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골프대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회장이다. 지난해 2월 기밀이 공개 해제된 미국 정보 보고서는 빈 살만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빈 살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LIV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총상금 규모는 2억5000만달러(3200억원)나 된다. 기존 PGA 투어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오일머니 파워를 실감하게 하는 새로운 골프대회다. 이로 인해 PGA 투어 선수들은 LIV골프 합류파와 PGA 잔류파로 나뉘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선수들이 더 많은 상금을 주는 대회로 옮겨가는 것을 마냥 비판하기만은 어렵다. 하지만 어느 선수의 말처럼,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상금을 걸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무턱대고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인근에서 끝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개막전에서 우승한 찰 슈워첵(남아공)은 우승상금(400만달러)을 포함해 총 61억원의 거액을 한번에 챙겼다. LIV 일반대회에 총상금은 2500만달러(320억원)나 걸려 있다. 일반 PGA 투어 대회의 3배 정도라고 한다. 골프에서도 '돈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국제수영연맹, 20일부터 12살 이후 성전환 여성 대회 참가 금지

국제수영연맹(FINA)은 20일부터 성전환(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여자 종목 경기 참가를 사실상 금지했다. FINA 회원국들은 19일(현지시간) 12세 이전에 성전환을 마친 선수들만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성별 포함 정책"을 채택했다. FINA는 또 "공개 경쟁 부문"을 제안했다.

후세인 알-무살람 FINA 회장의 대변인 제임스 피어스는 "12세 이전에 성전환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사춘기가 시작된 후 성전환을 하면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현재 최고 수준의 수영 대회에서 경쟁하는 성전환 여자 선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세계트랜스젠더건강전문가협회는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권장 연령을 14세로, 일부 수술을 15세 또는 17세로 낮췄다. FINA의 새 정책은 또 새로운 "공개 경쟁" 범주를 제안하면서 "향후 6개월 동안 이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새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공개 경쟁은 더 많은 이벤트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잘 모른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공개 범주에 대한 논의는 21일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IN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난해 11월 권고에 따라 선수 단체, 과학의학 단체, 그리고 법조·인권 단체 등 3개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발표를 들은 후 임시 총회를 열어 71.5%의 찬성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IOC는 개별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성능 상의 이점이 언제 존재했는지를 증명할 증거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적 소수자(LGBTQ) 선수들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애슬레틱 얼라이'의 앤 리버만은 FINA의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차별적이며, 유해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며 "성 정체성과 성별 다양성에 기초한 공정성, 포용, 비차별에 관한 IOC의 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책에 명시된 여성 부문의 자격 기준은 모든 여성의 신체를 감시할 것이며, 여성부문에 출전하려는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리아 토머스가 500야드(457.2m) 자유형 종목에서 우승, 미국 최초로 성전환 여성으로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토머스는 올림픽 참가가 목표라며 "성전환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생물학적 우위를 갖는 성전환 선수에 대한 경쟁 허용이 여성 스포츠의 무결성을 망친다는 주장을 반박했었다. 다른 스포츠들도 성전환 선수들에 대한 규칙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은 지난 16일 성전환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도록 자격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UCI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기까지의 과도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최대 허용 수치도 낮췄는데 이는 성전환 여성 선수의 근육량과 근력 적응에 최소 2년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과학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체육회는 제주도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51회 전국소년체전 당시 제주선발팀의 실격패를 빌미 삼아 제주도체육회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제주도테니스협회를 관리할 단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현재 스포츠공정감찰단 등의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테니스협회 임원진을 해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테니스협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전국소년체전 실격패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알렸지만 제주도체육회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절차 또한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황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제51회 전국소년체전 당시 남자 16세이하 테니스 단체전에 출전했던 제주 선발팀은 ‘미등록 지도자의 오더 제출’로 실격패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 선발팀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 현재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공정감찰단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건강도시 조성 앞장선 '세종시체육회'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828>

대한체육회 새 사무총장에 예산 전문가 박춘섭 전 조달청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89146&plink=ORI&cooper=NAVER

제주도체육회 또 물의...직원 성추행하더니 이번엔 폭행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5_0001908252&clD=10813&pID=10800

우석대, 학내 체육시설 장애인에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104000055?input=1195m>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꿈나무상 시상식 개최

<http://osen.mt.co.kr/article/G1111873921>

회장 공백사태 초래 불구 책임지는 사람 없는 '광주시체육회'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416>

대전체육의 역사 오롯이 품은 한밭종합운동장 63년 만에 해체... 베이스볼드림파크로 다시 만나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620010004110>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SPORTS-UP 챌린지' 개최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61614144599312>

롯데시네마, 영화관에 실내 체육시설 오픈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6161740314968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